

트럼프, 작은 트로피라도 원해...시진핑과 스몰딜 가능성

[중앙선데이] 입력 2019.06.15 00:43 수정 2019.06.15 01:52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 이사장

“오사카 G20에서 트럼프는 조그마한 정치적 트로피라도, 시진핑은 체면치레라도 해야 한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IGE) 명예이사장이 가능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요즘 속마음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을 진단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사공 이사장은 국제기구 수장과 세계 석학들과 나눈 대화록 『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를 펴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최근 글로벌 상황에 비춰 솔직한 제목이다. 중앙SUNDAY는 사공 이사장을 단독으로 만나 요즘 글로벌 경제를 진맥한 이야기를 들었다.

미·중 무역전쟁 진단

트럼프와 시진핑 빅딜은 불가능
결렬·합의 아닌 어정쩡한 결말 예상

미·중 무역전쟁은 패권경쟁 일환
양국 갈등 10~20년간 지속될 것

한국, 두 나라와 원칙 있는 외교 유지
경제·통상 관계 다변화·다층화 해야